

중문학 강의와 인터넷 운용

이진국*

<목 차>

1. 머리말
2. 강좌 운영의 구비조건
3. 강좌 운영의 동기 및 방식
4. 준비성 선행학습
5. 인터넷 운용의 강의 사례
 - 1) 현대와 고전의 만남 : '물란' 시나리오와 '목란시'
 - 2) 동영상을 통한 시문학 기행
 - 3) 노벨 수상작 (영산)과 고행진
6. 매듭말

1. 머리말

우리 학계 차원의 인문학 위기론 운위에 앞서 대학 강단에 선 일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중국문학 분야에 대한 강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정부 당국의 실용성 위주의 교육적 현실주의와 맞물려 대학 중문학과의 학부 강의는 각종 중국어 관련 과목으로 대부분 채워진 지는 오래되었다. 그나마 일부 고전문학을 포함한 문학 관련 과목은 개설되어도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편이며, 고학년 대상의 이론성 과목일수록 학생들의 수강 태도는 지루해하며 마지못해 따라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강의 실태에 대한 원인은 크게 보아 다음 두가지로 설명이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가능하다. 먼저, 중문학 분야의 성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용성이 낮은 과목이라 대학원 진학을 원하거나 개인적 취향에 맞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즘 젊은 학생들의 기피 대상이 되며, 졸업요건을 위한 전공 학점 취득용으로 비자발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의자나 수강자 모두 효율성 떨어지는 강의 시간을 매개로 지루해하며 흥이 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외국어문학과와 특성상 대학 입학 시부터 중국어 학습 영역의 여러 분야(* 문법, 강독, 회화, 작문 등)를 집중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단순, 반복 학습 위주의 수강 태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관, 고착화되어 오히려 고학년이 될수록 복잡하거나 이론적인 내용의 과목은 적응하는데 무척 힘들어 보인다. 이는 사회, 법정계열이나 사학과, 철학과 전공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론성 과목 수강에 별 어려움이 없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¹⁾

위와 같은 강단내의 현실을 계속 방치만 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과의 국교 수립 후 급증하는 상호 교류 속에 그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0여개의 대학에 중국어문학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모든 대학의 중문학과의 처한 상황은 비슷하리라 여겨진다. 국내 중국학 주변을 둘러싸고 팽창된 수요와 공급충간 발생한 괴리 현상을 점검하며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계 차원의 문제의식이 발동한 결과, 중국학 전반에 걸친 기획특집이나 토론의 장을 통한 총체적이며 거시적인 담론은 많이 생산되었다.²⁾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중국어 교육 관련 주변 논문은 상대적으로 편중 현상을 보일 정도로 많으나, 우리가 원하는 미시적 범주의 효과적이면서 실질적인 중국 문학의 교수법에 관한 논의는 거

1) 물론, 소위 A클래스 대학의 중문학 전공생들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실용성 추구의 현시세를 감안할 때 수강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은 공통적이라 생각된다.
2) 대표적인 학술대회 논제 및 기획특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세대를 위한 중국어 교육> (한국중국어학회, 2000.10) 2. <한국에서의 중국학 교육의 방향과 그 실천 방안> (국내 관련 4개 학회 공동 주관, 2001.10) 3. <한국 중국어문학 연구의 정체성과 국제화> (한국중문학회, 2001.11) 4. <한문과 중국어의 새로운 교육방법 모색> (《중국문학》 3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2.11) 5. <중국어문학 연구 · 교육자의 역할과 지향점> (《중국문학》 4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3.11) 이외에도 '중국어 교육법' 및 '교육학' 계열의 개별적인 단편 논문 형식의 글은 대단히 많다.

의 없는 실정이다.³⁾ 이에 필자는, 중문학 강의의 ‘환경 개선’이라는 의도하에 특정 과목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⁴⁾

2. 강좌 운영의 구비조건

1) 개설 강좌에 대한 의미 부여를 축소하는 일이다. 중국 문학 방면의 강의 내용은 일반 경상계열이나 법정계열의 그것과는 달리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거나 사회 진출시 취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특수한 경우 예컨대, 소수의 학생이 동일계 대학원을 갈 경우엔 진학 시와 학위논문 작성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마저도 국내 대학원 진학자의 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선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럼, 어떤 식으로 수강생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즐거운 자세로 한학기 수강할 준비를 시킴이 좋겠는가? 필자는 개강 첫시간에 중국어 관련 이외의 학부 개설 모든 과목에 대해 전공 과목으로서의 의미를 평가절하시키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곧 전공 자체로선 그 실용적 가치가 거의 없으니, 리포트 작성하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후엔 강의 내용을 잊어버려도 좋다고 한다. 대

3) 추석2)의 5항에 보이는 기획특집 논문 가운데, 권응상 교수의 〈중국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중문학》 40집, 303-317쪽)가 필자가 접한 유일한 자료이다. 이 논문은 필자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 강단에서의 고전문학 교수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폭넓고 체계적인 기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순수한 이론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올바른 대안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필자가 본 글에서 다루게 될 강단 현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중문학 교수법’에 관한 대안 제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필자가 ‘결론’에서 밝히게 될, 강의의 교육적 효용성 제고를 위해 몇 년간의 경험적에서 도출해 낸 내용이 권교수의 설문조사 항목과 대부분 ‘偶合’이 된다는 것이다.

4) 필자는 계속 혼자 이런 식의 강의 운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중문학계의 저간의 현실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독자들에게 수용되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생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 공개함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비록 학술적 견지의 이론성 논문이 아닌, 일종의 교육학 차원의 ‘교수법’ 관련 논문으로서 교육 일선의 동료 교수들의 중국 고전 및 현대문학 강의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일반 교과 운영에 원용이 될 수 있다면, 기타 일반 학술성 논문 이상의 실용성을 지닌 자료라고 여겨진다.

신, 본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두가지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나는, 한학기 동안 본과목의 이수 전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닥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요(예컨대, 사회학과는 사회학 전공 과목에 의해서, 경제학과는 경제학 관련 과목을 통해), 다른 하나는 비전공자에 비해 그래도 ‘중문학 방면의 일반 상식’을 약간은 더 갖추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본과목 이수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만이 사회 진출시 어려운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2) 수강생들의 공통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매체를 활용한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혁명’은 바로 인터넷 활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인터넷은 불, 증기, 전기, 원자력에 이은 인류 문명 최대의 이기임에 틀림 없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은 이제 인터넷에서 시작하여 인터넷에서 마무리될 정도로 인터넷이 없는 환경은 1시간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과 그 사용자 및 컴퓨터 활용도가 가히 세계 최상의 국가임은 일견 자랑스런 미래의 자산임에 틀림 없다. 교육 매체에는 각종 일반 시청각 설비 및 자료가 있지만, 그 어느 매체도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자료 전달의 쌍방성과 신속성, 검색 자료의 무제한성 그리고 용이한 근접성, 정보 전달의 보안성과 사용의 편의성, 각종 시각성 자료와 동영상 및 청각성 자료의 대해(大海)라는 점 등이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춘 인터넷이란 매체는 요즘 대학생들이 바로 그 활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의식구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문명의 이기와 공통적인 호기심을 강의실로 수렴시켜 강의용 매체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대의 자연스런 추세에 순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3) 가상강의실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터넷 환경을 갖춘다. 본 글에서 논제로 설정한 ‘중문학 강의를 인터넷 운용을 통해서 한다’는

말은 다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강의 운용의 ‘주된 매체’는 인터넷이며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강의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강의실에서의 오프라인 강의도 동시에 시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글에서 소개할 내용은, 전적으로 온라인 형식에만 의존하는 인터넷 사이버 강좌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다음, 강의 시간에 취급되는 각종 텍스트용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유동적인 자료들로만 구성되며 서면 자료를 비롯한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고정된 오프라인 개념의 텍스트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활한 인터넷 운용을 하기 위해서 담당교수는 다음 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 곧 대학측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한 과목별 혹은 교수별 가상공간이나 교수 개인이 마련한 가상공간에서 해당과목에 대해 최소한 < 공지사항 / (강의)자료실 / 리포트제출 / 질의응답 >란이 마련되어야 하며, ‘리포트제출’과 ‘질의응답’란에는 반드시 ‘답글’을 달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되어야 한다.

4) 강의실 역시 최소한의 설비 환경을 갖춘다. 본글에서의 강좌 운영은 온라인 이외에 대학내 지정된 강의실에서의 오프라인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이때 필요한 강의실 설비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비된 컴퓨터 1대와 강의실 앞면에 설치할 인터넷 화면 투사용 대형 스크린 장치(곧, ‘빔프로젝터’)가 필요하다. 최근 대부분 대학의 강의실 일부엔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태여 학생 개인별 컴퓨터를 사용하는 강의실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선 집중도가 떨어져 강의실에서의 이론성 내용의 전달에 일부 장애가 올 수 있으며, 제한된 짧은 강의시간을 개별 실습에 할애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강의실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익힌 인터넷 운영 관련 이론에 대해 수강생들이 하교 후 환경이 갖춰진 다른 공간에서 개별 실습할 복습용 과제를 따로 부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5) 담당교수와 수강생 공히, 최신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우선, 수강생들은 강의실 수업 이외에 복습용 실습과제와 연습용 실습과제를 처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된 컴퓨터 공간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 통상, 가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학내 기숙사 컴퓨터실 혹은 대학내 전용컴퓨터실을 이용하기도 하며, 인터넷시험을 치르는 도중 사용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급하게 동네 컴퓨터 게임방에 가는 학생도 보인다. 이때, 어느 컴퓨터 환경에 있든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항상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미리 점검하여 설치해 두어야 한다. 먼저, 윈도 체계는 최근까지 MS사의 '윈도 XP' 버전으로 통일되다시피 대부분의 컴퓨터에 장착된 관계로 큰 문제는 없다. 가끔 이전의 '윈도98', '윈도Me', '윈도2000pro'나 최근의 '윈도Vista'가 탑재된 컴퓨터의 경우, 강의실의 이론 강의에서 과외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지도를 해야 되었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다. 다음엔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이 심어져 있어야 한다. 최근 버전 '2004, 2005, 2007'까지 출시되었는데, 보통 '2002'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자료는 저장시에 <버전97-3.0>으로 변환시켜 전송하도록 지도한다. 필자의 대학내 공식 버전이 '2002'인 관계로 그 이상의 버전은 아래 버전에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중국어에 한어병음이 첨부된 간체자 입력 학습을 위해, <한글> '97기능강화판' 파일을 가상강의실 <자료실>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수강생 전원에게 개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 구하기가 어렵지만 중문학과 수강생에겐 사용될 때가 많은 버전이다. 끝으로, 본글의 강의 운영상 가장 폭넓은 쓰임을 보여줄 중문 워드프로세서 <남극성> 설치에 선택이 아닌 필수 프로그램이다. 버전 'njcwp 520sw 61018'은 2006년도 10월판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전 버전에 보이는 결점을 많이 보완하고 기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로, '남극성'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파일이 가능하다.

3. 강좌 운영의 동기 및 방식

1) <인터넷중문학기행(Chinese Literary World on Internet)>이란 교과목을 개설, 운영한 지 5년째이다.⁵⁾ 과목 개설의 공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⁶⁾ 학부생 3-4학년의 경우,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우리말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자료 활용은 자유자재로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의외로 중문 사이트 검색이나 중국어 이메일 교환, 방명록 작성, 채팅 등은 물론, 중문 사이트에 접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좌 개설 학기마다 설문지를 받지만 결과는 매년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며, 역으로 본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아니한 학생에 비해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중문 자료의 중문/한글 워프에서의 작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급 학년에서의 과제물 처리나

5) 매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주/야간 2개 클래스를 운영해 왔다. 클래스당 수강 인원은 주간은 평균 30명 내외, 야간은 15명 정도였으나, 2007학년도 2학기엔 일시적으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곧, 학과내 일부 과목이 신·구 커리큘럼과 중복되는 시기에 해당되어 본과목의 경우 2, 3학년 주/야간에 4개 클래스가 동시에 개설되어 총 수강인원은 120명이 넘는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과목 운영상 그 교과 내용과 교수 방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시행착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정리할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6) 문과 계통 교수들이 일부 그러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독한 기계치이다. 필자는 자신의 '컴맹'과 '넷맹' 상태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본 과목을 우선 개설해 놓고 여기에서 배수진을 친 것이다. 강의준비 과정에서 노력하고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의 개설 후 첫 1-2년간은 그야말로 시행착오와 시간과 노력 낭비로 얼룩졌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이인호, 조관희 교수의 홈페이지와 저서 덕을 운몽으로 받은 장본인이다. 두 교수는 우리학계의 인터넷, 컴퓨터 방면의 권위자답게 공저로 《인터넷 플러스 중국》(중국어@센터, 2001)을 출간하였으며, 이인호 교수는 공저 출간 후 중국 관련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던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필자는 잠시 놀랐으나, 곧 단독 저서 《나는 중국어도 인터넷으로 배운다》(중앙 M&B, 2002)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컴퓨터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앞의 두 권의 책은 그 기능을 1년내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대신, 필자는 그후 앞선 지식을 기초로 새로운 운영법을 체득에 소화하면서 오늘까지 강의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간에 윈도XP가 출시되어 필자와 수강생들 모두 편의성과 수월성의 혜택을 입었다. 특히, '윈도XP 체제에서의 중국어 사용법'에 있어선 초기엔 《중국소설연구회보》(제57호, 2004.3.)에 실린 이무진 교수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

중국과 연계된 취업, 중국으로의 유학 준비를 하는 경우 실용성이 있다고들 한다.

학생들의 중문 인터넷 운용에 대한 체계적 지식 부재는, 중국학 전공자로서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엔 불완전한 상태에서 졸업시키게끔 만들고 있다. 이에, 기왕 중문 인터넷과 워드프로세서 활용법을 교육시킬 계획이라면 중문학 방면의 지식을 접하게 하고 제손으로 만든 병음본 텍스트로 고급중국어 독해력까지 향상시킨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강좌의 강의 목표는 <급변하는 과학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젊은층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강의실로 수렴시킴과 동시에, 중국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는 효과를 겨냥한다. 부수적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중국어권(대륙,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 산재한 인터넷상 자료 검색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 진출시의 전공 분야와 관련한 정보화 마인드를 배양한다 >라고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과목 개요 역시, <본 강좌에서 취급될 주요 내용은, 중국의 현대와 고전을 포함한 중국문학 전영역에 걸친 특정 테마별 접근, 특정 작가 혹은 작품 연구, 그리고 특정 시기의 문학적 현상에 대한 조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은 가급적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자료들로써 구성될 것이며, 강의 주제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중국 각지의 역사 및 문화 유적 답사도 계획되어 있다 >라고 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강의 내용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2) 본 강좌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세갈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삼자에 공통적인 관리 형식을 보겠다. ‘공지사항’은 가상강의 시스템상 <공지사항>란을 통해 일반 형식으로 전달되며, ‘강의자료’는 담당교수가 임의로 편집한 자료를 매주 혹은 수시로 <강의노트>란에 첨부파일 형태로 올리면 수강생들이 개별 프린팅하여 강의시에 지참하도록 하며, ‘과제물’은 <리포트제출>란에서 수강생들이 파일화한 자료를 전송하게 되는데, 모든 게재 자료는 취급시의 실시간으로 분, 초 단위까지 기록이 남아 담당교수로서는 관리에 무척 편리한 측면이 있다.(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중간/기말고사의 경우 시간 체

크가 아주 중요함) 그리고, 과제물 제출시엔 항상 과제물 하단에 해당과제를 하면서 가진 ‘소감’ 및 지난 강의시의 ‘개선점이나 좋은점’을 일정 분량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수정치는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인터넷 중문학 기행을 위한 ‘선행 학습 단계’의 운영 방식을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선 본격적인 중문학 기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학습시키게 되는데, 가상강의실에서 개별 프린팅해 온 이론성 강의 자료물에 대해 담당교수는 설명식 강의 후 인터넷 화면을 통한 실습 과정을 순차적으로 강의실 앞면의 대형 스크린에 다 투사해 준다. 수강생 가운데 몇 명을 인터넷 운용 시연에 참가시킴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일반적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발견하기도 한다. 강의실에서 다룬 이론적인 내용은 <공지사항>란에다 그 해당주의 복습용 실습과제로 공지를 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자신이 수행한 실습과제 결과물을 가상강의실의 <리포트제출>란을 통해 전송하게 되면, 담당교수는 인터넷상으로 실습과제에 대한 개인별 체크를 하여 ‘답글’ 형식을 빌어 피드백식 평가를 해준다. 그리고, 다음 강의시간에 담당교수는 이전 실습과제 결과에 대한 공통적인 착오점 및 몇 건의 모범 사례를 인터넷 스크린상에서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별 실수를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게끔 만든다. 수강생의 수정 과제물에 대한 담당교수의 재확인 및 평가로 한단원의 강의를 마무리된다.

다음으로, ‘중문학 기행’ 단계에서 행해지는 학습 방식을 보자. 다음주 강의자료는 이번엔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받은 수강생 자신들의 과제 처리 결과물로서 충당하게 된다. 곧 ‘예습용 실습과제’를 부과하여 그 결과물 모두는 담당교수에게 첨부파일로 전송케 하고, 그 가운데 내용의 일부분은 가상강의실 <자료실>란에 일반 게시를 통해 올리게 하여 해당 클래스 수강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2-3곳 이상 다른 동학들의 글에 댓글을 달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온라인상에서 특정 작품이나 테마를 사이에 두고 수강생끼리의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다음주 강의실에서 진행될 담당교수와의 오프라인상 강의 내용에 대한 예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강생들은 담당교수

에게 전송한 자신의 파일 내용을 프린팅하여 강의에 참가하면, 담당 교수는 체크하여 정리된 수강생들의 과제물 평가서를 토대로 해당 학생들에게 발표를 권유하는 한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교수 학생간 또다른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선 결과적으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수간 이중의 쌍방 토론식 강의가 진행되는 셈이니, 해당 주일의 강의 내용은 철저하게 분석되고 소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한 중간 및 기말고사 시행 과정을 소개한다. 우선 가상강의실 <공지사항>란에다 고사 일시를 비롯한 관련 내용을 사전 공고하는데,⁷⁾ 이 방식은 아마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독특한 성격이 아닌가 싶다.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초고속 인터넷망을 가진 컴퓨터만 설치되면 응시가 가능하니 장소의 원근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4학년 수강생의 경우, 취업이 되어 서울이나 북경에 근무하더라도 동일 시각에 함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생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 학교에 올 필요가 없으며 담당교수 또한 추가 시험의 번거로움이 없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에 출제용 파일을 올리면, 수험생들은 아주 공평하게 같은 시각에 문제를 접하게 되며 작성된 답안용 파일은 <리포트제출>란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전송되면 파일 도착 실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록되어 담당교수는 언제 채점을 하더라도 제한된 고사시간을 초과한 학생에게 공지된 기준대로 감점 처리를 할 수도 있다.⁸⁾

7) 예컨대, 다음과 같다 : 가) 시험 일시 : 본과목 가상강의실 <공지사항>란을 참조할 것. 만일, 학교 메인 컴퓨터의 '에러'로 접근이 불가능할 시엔 변경된 일시에 시작함. 나) 시험 장소 : '초고속망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장소. 다) 시험 범위 및 자료 이용(open book) : 1) 강의자료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실습적 성격의 문항 제시. 2) 기재된 과제 유형(가상강의실 <공지사항>란에 제시된 과제 내용을 모두 확인할 것)을 모델로, 제한된 시간내에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연습할 것. 라) 참고사항 : 1) 초고속 인터넷망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을 것. 2) <한글> '버전2002이상' 및 '버전97'이 동시에 설치된 곳 3) 컴퓨터에 <납극성> 워프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중문 '간체 / 번체자 입력기'를 활성화시켜 놓을 것. 5) 정해진 고사시간을 엄수할 것.

8) 이 제도 시행엔 약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무감독 시험이라 수험생끼리의 계획된 부정의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험 방식을 '오픈북'으로 하되, 제한된 시간에 범위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학생은 답안 작성이 어렵도록 출제 범위를 넓게 잡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복합식 문제를 내며, 유사한 답안엔 쌍방 감점처리토록 하는 등의 장치로 부정 행위를 줄

4. 준비성 선행학습

이 과정에선 다음 장에서 거론될 인터넷 ‘중문학기행’을 위한 선행 학습 내용을 소개하게 된다. 전반부는 한글 및 중문 ‘인터넷 운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필자가 학생들과의 실습과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을 정리한 것인데 이 방면의 관심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자료에 해당한다.(* 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을 참조할 것) 후반부는 중국문학 전반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으로, 강의 편의를 위해 필자 자신의 일관된 시각과 체제로 구축한 글이다.

위의 ‘인터넷 운용’에 관한 항목의 표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중문 인터넷상에서 중국어로 된 자료 읽기와, 중문 입력법 및 입력 공간에 관해 다루며, 이어서 국내에서 구입이 용이한 중문 워프의 하나인 <남극성>을 소개하는데 <남극성>은 중국어 운용상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가장 편의성을 제공하는 분야는 지정 자료에 대한 ‘한어병음 동시 첨가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래아한글>의 다양한 중국어 운용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게 된다.. <한글>은 버전에 따라 중문 운용에 도움을 주는 몇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글> 버전2002 이상에서는 한글과 중문 웹문서는 대부분 복잡한 절차없이 한글 문서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글> 시리즈에서의 ‘한어병음’을 이용한 중국어 입력법은 <한글> ‘97버전’에서 ‘2007버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어 한어병음 첨가법은 <한글> ‘버전2002’에서 ‘2007’까지 버전이 높아질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한어병음에 성조를 첨부하거나 수정하는 기능 역시 <한글> ‘97강화판’이 오히려 ‘2000시리즈’보다 편리하며, ‘97강화판’에서만 간(번)체자 아래위에 병음(성조) 직접 표기가 가능하다. 곧 <한글>은 중문학 전공자가 사용하기엔 일부 기능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끝으로 다른 <남극성>과 <한글>의 결합 운용은, 필자가 가장 유

인다.

용한 기능임을 확인한 분야로 <한글>상 중국어 문서의 <남극성>에
서의 편집과 <남극성> 중문 자료의 <한글>에서의 편집의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과정은 한어병음이 첨부된 대량의 자료를 <한글>로
옮겨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장 폭넓게 활용될 기능으
로 여겨진다.

5. 인터넷 운용의 강의 사례

본 단원에서는 앞장에서 소개한 인터넷 중문학 기행을 위한 ‘선행
학습’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온라인상의 문학 여행을 떠나게 된다. 곧
문학 여행의 세가지 케이스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앞서 거론된 여러
교수 방법론과 이론 실체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흥미 유발
과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해 보게 된다. 본 단원의 내용
에 원용된 교육 환경과 방식은 4장에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우
선, 강의노트의 대부분을 수강생들이 연습용 실습과제를 통해 주동
적으로 마련하게 되며, 강의실에서의 오프라인 수업 이전에 이미 가
상강의실에서 일부 강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끼리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거치는 과정에서 강의 내용에 대한 학습 동기가 어느 정도
부여된다. 또한, 강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쌍방향 토론이 이뤄지기도
하며 일종의 퓨전식 방법론이 도입되고 있다.

1) 현대와 고전의 만남 - ‘물란’ 시나리오와 ‘목란시’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물란’은 지금의 우리 대학생들
이 초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 본 적이 있는 작품으로 이미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와 상관된 다른 형태의 작품이나 자료물도 평균 이
상의 관심과 흥미 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나

주인공이 중국 북조의 민가 ‘목란시’에 보인다는 사실이, 필자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중문학 기행이란 강의 형식에 아주 적합한 교육 재료로 다가왔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물란’을 손쉽게 다시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란시의 원본 역시 중문 사이트를 검색하여 구할 수가 있으며, 물란 관련 국내 한글 사이트 및 우리말 자료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과 연습용 실습과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작업을 지시하게 된다.

(1)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물란(Mulan)’에 대해 : 1) 전체 줄거리 소개. 주요 '단락별'로 나누어 설명. 아래 ‘인터넷 동영상’ 혹은 사이트의 관련 자료 참고. 25행으로 요약. 2)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및 역할 설명. 3) 작품 혹은 배경이 된 자료에 관한 주요 사이트의 언어권별 조사. 한국, 영어권, 중국어권 3개 지역. 사이트 명칭, 주소, 특성. 4) 가상강의실 ‘과제물제출’란에 첨부파일로 전송, 제출 자료 1부는 프린트팅하여 강의시에 지참.

(2) <물란> 동영상 감상을 전제로 : 1) 작품에 관한 소감문을 가상강의실 ‘질의응답’란에 20행 이상 등재. 한글 <야후>에 '물란1 동영상' 입력시 보이는 동영상 참조. ‘물란2’는 다른 내용임에 주의. 2) 동학들 감상문에 대한 비평식 ‘답글’을 2곳에 달 것.

(3) 가상강의실 ‘강의노트’란의 ‘목란시’ 번역본 및 ‘목란중군’ 관련 우리말 자료, ‘물란’ 시나리오 중국어본에 대하여 : 1) 3종 자료 프린트팅하여 강의시 지참. 2) ‘목란시’ 번역본과 중문사이트에서 검색한 ‘목란시’ 원본을 참고로, 셋째 단락(17행-19행)을 대상으로 <한글>에서 : <원문(신명조간자, 폰트16)/ 원문위 한어병음성조(신명조, 폰트12, 색상)/ 우리말 해석>작업후 첨부파일 ‘리포트제출’란으로 전송. 3) ‘물란’ 시나리오 중국어본의 첫 6행에 대해 <한글>에서 :<원문(신명조간자, 폰트16)/ 원문위 한어병음성조(신명조, 폰트12, 색상) / 해석용 ‘행간 여백’/ 해당쪽 아랫단 단어 정리.<원문+ [한어병음]+ 우리

말풀이>. 파일 전송후 1부 프린팅하여 강의시 지참. 4) ‘목란시’ 원본 <남극성>에서 ‘한어병음’ 처리후 프린팅하여 올 것.

(4) 위와 같은 연습용 과제물이 일견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2주일에 걸쳐 2-3차례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제여서 처리상 큰 부담은 없으며, 준비성 선행학습 과정을 통해 중문 자료의 <남극성>, <한글>에서의 각종 형태의 작업은 이미 대부분의 학생이 완전 소화하여 숙달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

(5) 수강생들과 담당교수의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강의실에서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4장의 선행학습 단계에서 다룬 시대별, 문학 장르별 내용 가운데 남북조의 시대상과 문학 현상, 그리고 고전 시가류 중 고체시에 대해 재차 환기식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가져온 첨부파일 자료(‘목란시’ 번역본에 첨부된 해설자료)를 중심으로 작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식 강의를 한다.

이어서, 학생들이 ‘목란시’ 원문에 <남극성>을 이용하여 작성한 ‘한어병음본’ 목란시를 텍스트로 삼아 중국어 낭송과 우리말 번역문 대조를 통해 단락별로 독해와 감상을 병행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목란시 원문 해석은 기존 번역본에 의존해도 좋은 것이 이 단원은 고문 작품의 독해력 배양이 목적이 아니라 ‘물란’의 소재적 근원인 ‘목란시’의 내용 파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전달된 우리말 자료 ‘목란중군’이라는 ‘목란시’의 후속 버전을 중심으로 ‘목란시’와 ‘물란’, 세가지 버전 가운데, <등장인물, 물란의 가족관계, 물란의 신분이 탄로나는 시점, 전쟁 묘사, 물란 혼사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임의적 질문을 통해 교수와 학생간에는 쌍방 토론 혹은 설명식 강의를 전개된다. 학생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감상한 인터넷 동영상의 내용과 기계출한 프린트 자료를 근거로 질의응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듯 강의 방식의 복합적 운용 가운데 ‘목란시’에서 ‘물란’에 이르는 주변 지식은 정리가 되고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는 제고된다.

마지막으로, ‘물란’ 중문 시나리오 대본의 강독 과정이 남게 된다. 이미 과제로 제출된, 한어병음 처리와 단어 조사가 끝난 학생 개개인의 강독 텍스트를 토대로, 작품 함께 읽기와 문법을 적용한 독해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작품 내용 강독에 앞서 강의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물란’ 인터넷 동영상의 강의실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여 대본에 나오는 첫장면을 5분 정도 함께 감상토록 한다. 동영상 시연 전에 화면상의 분위기나 주변장면, 인물의 대사를 주의깊게 보라고 하는데, 이는 시나리오 대본상 특히 ‘지문’식 설명이 많이 보이고 대사는 강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영상 감상 후, 직전에 나온 장면 설명과 대사가 강독 텍스트에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한 단어풀이(병음처리된 단어는 우리말 검색에 시간이 절약됨) 등이 담당교수의 분석적 설명과 어울려 지루하지 않는 가운데 중급 수준 이상의 중국어 강독 수업은 끝나게 된다.

(6) 이상의 전과정을 통하여 ‘목란시’와 ‘물란’이라는 고전과 현대식 두 작품의 감상과 이해는 마무리된다. 과제물 제시가 부담되어 보이지만 실은 작성엔 어려움이 없으며, 어수룩한 방법이 등장한 듯 하지만 역시 퓨전식의 융합이라 각기 제맛을 지닌, 결국은 통합적인 의미있는 방식의 교수법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은 온라인상 애니메이션 ‘물란’과 ‘목란시’에 관해 이미 몇개국의 사이트 검색 여행을 마쳤으며, ‘물란’ 작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나아가, 오프라인상에선 교수와의 질의응답식 강의 진행에 합류함으로써 결국 두 갈래의 쌍방식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작품 원문을 중문 인터넷에서 <남극성>을 거쳐 <한글> 위프를 사용하여 원문과 한어병음 및 우리말 병기 작업을 하였으며, 현대식 중문 시나리오를 역시 <남극성>에서 발음 처리하여 <한글>에서 원문에 한어병음, 그리고 단어 정리까지 함으로써 미니형 ‘중국어교본’까지 편집을 해본 셈이다. 동영상 감상 후 그 내용에 관한 시나리오를 통해 중국어 강독을 하게 되니, 흥미로운 [문학] 작품 감상에 실용적인 중국어 학습을 융합시킨 경우라 하겠다. 필자는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자투리 시간에 ‘빔프로’로 인터넷상의 동영상 ‘물란2’를 덤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2) 동영상을 통한 시문학 기행

본 과목의 개설 취지에 가장 적합한 교육 매체는 아마, 문학 작품이나 작가에 관한 집중 소개 가운데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 공간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비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TV나 DVD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직접 시청 가능한 동영상이면 금상첨화격이다.⁹⁾ 인터넷 동영상물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매체가 될 수 있다함은, 우선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의 활용으로 강의실의 텍스트 위주의 분위기를 벗어나 바로 중국의 작품 생산 현지를 생중계하는 가운데 작품 감상은 물론, 인터넷 역사 풍물기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춘 영상물 1편의 사례를 들어 강의 현장으로 가보겠다. 여기서도 예습용 실습과제가 먼저 주어진다.

(1) ‘중국시문학기행’ 동영상 찾기 : <1> <http://dmc.knou.ac.kr>. 1) '일반회원' 가입 2) i.d, p.w 입력 후 '일반회원' 클릭. 3) 방송대학 TV / 프로그램찾기 / 매체별보기 / TV / 평생교육(맨아래) / 문화교양 / 중국시문학기행 / 다시보기 / 첫번째 작품[무료] / <매체> 클릭. <2> 실습과제 및 강의자료 준비물 : 동영상 감상하면서 인상

9) 다행스럽게도, 몇 년전 필자가 인터넷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한국방송대학 홈페이지에서 중국 현지를 무대로 이백과 두보를 중심으로 여러 고전 시인과 작품을 소개한 동영상 시청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중문학과인 경우, 방송대만큼 학년별 모든 교과목 텍스트가 단독으로 완성하게 편집, 제작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대는 여기서 나아가, 입체적이며 생동감 있는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오니 교과목 운영자로선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중국시문학기행>이란 타이틀을 가진 13편의 동영상물은, 방송대 김성곤 교수와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가 중국 시문학 생산 현장을 답사기행하면서 제작되었는데, 많은 인용시의 해설 및 감상을 현지의 경물 및 역사적 유적과 함께 내레이터의 목소리를 빌어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에 남는 한시 '2수' 선정하여 1) '제목', 내용 '번역문' <한글>에서 편집. '제목'은 '원문' 기재. 2) 선정 작품은 동영상에서 행해진 '작품 감상 및 배경, 해설' 요약, 첨부. 3) 선정 작품에 대한 '감상' 10행 이상 기술. <3> 제출 방식 및 기타 : 1) 첨부파일로 '리포트제출'란에서 전송. 2) <2>의 3)항 내용(감상문)을 '질의응답'의 '내용'란에 다 소개. 3) 동학들의 감상문 열람 후 '비판적 답글' 2곳에 달 것. 4) <2>의 첨부파일 내용 프린팅하여 강의시 지참.(강의 및 지정발표용 자료) 5) 동영상의 '화면정지 및 재생 기능' 이용할 것. 6) '두보', '이백'의 중문사이트 검색, 열람 바람.

(2) 복리뷰 대응 실습과제를 다음과 같이 부과함 : <1> 과제물 내용: 1) 방송대 12편의 동영상 중 개인별 배정 작품, 결제후 감상하면서, 2) 동영상의 '모든' 작품에 대해, '작품 제목 / 작자 / 번역'(제목은 한자 및 한글, 나머지 모두 한글) 순으로 작성. 3) 좋아하는 작품 '3수'에 동영상에 나오는, (가) 작품 감상 및 배경, 해설 (나) 세 작품에 대한 감상, 10행 이상 (다) 동영상 '전체'에 대한 감상, 30행 이상 서술. 4) '리포트제출'란에서 첨부파일로 전송.

(3) 강의 대상으로 선정한 동영상 작품은 전체 13편 가운데 제목이 <귀비와 취선>으로, '당대 서안에서 장안에 이르는 유적 여행을 통해 양귀비와 당대 최고의 시인이며 술을 사랑하여 취선이라 불리는 이백이 살던 역사 배경을 보면서 이백의 시를 감상하고 양귀비와 얽힌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되는'¹⁰⁾ 내용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강의 진행상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동영상을 감상한 후 예습과제와 같은 준비사항을 요구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강의 내용에 관한

10) 동영상 초기 화면에 보이는 작품 해설을 인용한 부분이다. 첫 작품이 '맛보기용' 무료 작품이라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우선 쉬웠으며, 중국 최고 시인 이백과 양귀비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등이 관심을 끌만하여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다. 나머지 12편은 유료인데, 작은 비용(편당 400원)이지만 결제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선 번거로워 보인다. 작품의 제목을 참고로 소개한다 : 가난한 사립의 노래/ 두보의 삼리현장을 가다/ 낙양. 그리고 두보와 이백/ 시선과 시성의 교류/ 금릉의 시인 이백/ 달과 함께 떠난 시인/ 서호와 오궁/ 안식의 땅, 초당을 찾아서/ 아미산 가는 길. (그런데, 나머지 3편은 홈페이지 개편 과정이라 화면에 보이지 않음)

윤곽 파악을 하도록 한다. 물론, 동영상에 나오는 이백과 두보에 관한 제반 비교 사항, 그리고 고체시와 근체시를 비롯한 고전 시가류 전반에 대해서는 4장의 ‘준비성 선행학습’ 과정에서 다룬 바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미 시가류의 형식이나 기타 시문학 관련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들이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된 과제는 담당교수가 온라인상에서 검토하여 개인별 취급 작품명과 특이 사항을 기록해두어 강의실 수업 시 질의응답과 지정 발표용 근거로 삼게 되며, 학생들은 제출된 자신의 과제물을 프린팅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용 자료로 재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선정한 작품에 대한 감상과 견해를 표현하고 다른 동학들의 그것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공지됨)

강의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위의 동영상물에 대해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인터넷 스크린 감상을 함께 하고(상영시간 30분), 동영상에 등장하는 총 8편의 시(이백 4, 두보 2, 백거이 1, 유우석 1)를 중심으로 개별 과제물에서 해당 시편을 취급한 학생을 2명씩 복수로 지정하여¹¹⁾ 시 낭송과 내레이터의 설명, 그리고 개인 감상을 발표하도록 하고 담당교수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따르게 되는데, 이때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내용을 스크린에 투사하여 수강생 전체가 눈으로 확인하며 듣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다. 질의답변을 마친 뒤, 담당교수는 취급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주변 내용을 보충 설명해줌으로써 강의실에서 접한 그날의 강의 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용이하게 접수될 수 있다. 이어서, 온라인 감상문에 답글이 많은 학생 2-3명의 감상문과 거기에 첨부된 비판적 답글까지 함께, 스크린상에서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공감대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미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북리뷰 대응 실습과제’를¹²⁾ 같은 시리즈의 동영상물로 부여한 것은,

11) 이미 담당교수가 강의실 수업에 임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기제출된 과제물 검토에서 학생별 취급 작품의 종류와 우수 사례를 분류하여 기록해 둔다고 하였다.

12) 필자의 대학에선 매학기 과목당 소위 ‘Book Review’ 과제가 부여되는데, 통상 학기초에 지정된 오프라인상의 일반 텍스트를 1권 이상 읽고 요약하거나 문제점 제기 및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여 그 결과물을 학기말 이전에 제출하여 일정 비율의 성적을 받도록 하고

중국시문학 텍스트에 관한 한 위의 동영상물은 그 내용 자체로서도 가치가 매우 높으며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오프라인 강의 한 회로만 활용하기엔 아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써, 수강생들은 일종의 온라인 방식의 재택강의를 수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 수업의 외연을 확대시킨 결과가 되었다.

(4) 위에서 소개한 영상물 시문학 강의의 원용 역시 그 진행상 여러 가지 특성을 접하게 된다. 제작 자체에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자되고 전문적이며 치밀한 기획의 소산이란 점에서 우선 소중한 교육 텍스트임에 틀림 없으며, 대학 강단에서 중국고전시가를 한학기 동안 강의한다면 전적으로 참고 내지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텍스트를 수강생들은 사전에 부과된 예습과제 처리 과정에서 여유롭게 감상한 후에 동학들과 온라인상에서 감상문 교환을 하게 되며, 강의실에선 담당교수와의 질의답변 및 설명식 보충 강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므로 이 역시 일종의 두 갈래의 쌍방 토론식 수업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은 편인데, 일부는 자발적이긴 하나 일단 대부분은 담당교수의 의무적 과제 부여와 임의지정식 토론 유도 방식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강의실 수업 진행상 영상물 텍스트를 미리 같이 한번 봄으로써 본 강의 직전 환기된 텍스트 내용이 선명하게 머리에 각인되고 수업 분위기가 공감대 형성이 쉬워지게 된다. 또한, 지정 발표나 모범사례 소개 시, 온라인상 접수된 해당 학생의 과제물 파일의 내용을 강의실의 대형 스크린상에 투사시켜 줌으로써 강의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과제 말미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학생은 이백과 두보에 관한 중문 사이트 검색을 권유하였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사이트 검색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찾아 원문을 우리말 문서에 활용하는 능력은 일

있다. 그런데, 본 강좌에서는 앞에서 모든 텍스트나 자료, 수업 방식의 대부분을 철저하게 온라인상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던 바, 이에 '북리뷰' 과제 역시 인터넷상의 동영상물로 충당하게 된 것이다.

반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필요에 의한 자료 서핑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선행학습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도록 한 결과인데, 따라서 중문학 기행 과정에서 관련 사이트의 구체적인 검색 결과를 매번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3) 노벨 수상작 <영산>과 고행건

중문학을 전공하고 강단에서 현대문학을 강의하는 필자가 중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고행건과 그의 작품 세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본 강좌 운영이후부터였다. 노벨 평화상이나 문학상이 유독 정치성 개입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벨상의 존재 의의에 회의론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중국학 전공자인 필자나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존하는 법이다. 더군다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국내외 어디든 원하는 자료 서핑이 가능한 오늘에 있어서라! 그런데, 요즘 학생들 대부분이 전공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에 보이는 집념과 의지가 약한 것이 안타깝게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고행건에 대한 소개성 강의의 경우, 이러한 우리 학생들에겐 전혀 새로운 인물로 비치니 오히려 차체에 강의를 진행하는 필자 입장에선 고행건을 매개로 1949년 중공 건국부터 개혁·개방 이후 10년(1988)까지의 중국 현대사의 명암을 체계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수상작 <영산>에 투영된 이면적 주제 가운데 일면이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륙의 덮어두고 싶은 실상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역시 인터넷 매체에만 의존한 텍스트 자료와 학생들의 개별적인 텍스트 편집, 그리고 중문 사이트의 관련 정보 검색을 기본으로 하여 <영산>의 문학 세계로의 기행을 떠나게 된다. 여행 또한 전과 같이 예습용 과제 부여로부터 시작된다.

(1) 국내 사이트의 <영산> 번역본에 대한 다음 서평 내용을 텍스트로 편집할 것 : <1> 기본자료 : '성민엽'의 <출판사서평>/ '신정

호'의 서평/ 조선일보, '김광일'의 미디어 서평/ 중앙일보, '정재서'의 미디어 서평/ 한겨레신문, '최재봉'의 미디어 서평>. <2> '서평' 원문을 <한글>에서 편집을 하되, 서평마다 쪽수를 새로이 함.(중고딕체 폰트10, 행간160으로 '문단'별로 구분되도록 주의) <3> 정재서 서평의 다음 사항 조사 : <상흔문학/ 생태주의/ 심근문학/ 옴니버스 형식 / 빠진(巴金)/ 아이칭(艾青)/ 왕멍(王蒙)/ 베이다오(北島)>.(항목당 5-10행 분량. 글자체, 폰트, 행간은 위와 동일) <4> 첨부파일로 '리포트제출'란에서 전송, 파일 내용 프린팅하여 지참.(* 이하 동일)

(2) 중문 사이트에서 다음 자료를 찾아 편집할 것 : <1> 고행건의 문학활동에 관한 문장. <2> 고행건의 <영산>에 관련된 소개성 자료. <3> 고행건의 '드라마·소설' 중심의 작품 목록. <4> <한글>에서 편집을 하되, 신명조간자, 폰트11, 행간160. 자료 출처(사이트 주소) 표시. <5> 첨부파일로 전송.

(3) 인터넷상 <영산> 원본 검색 후(선행학습 과제 부과시 소개한 사이트 참조) 다음의 텍스트를 만들 것 : <1> 원문 제1회의 첫머리 2개 문단을 <남극성>에서 병음처리하여, <2> <한글>에서 신명조(간자), 원문(폰트16), 원문위 한어병음(폰트12, 색상처리). <3> 아래단에 모르는 단어 정리. 중고딕체(간자), 폰트(14), <원문+ [한어병음]+ 우리말 풀이>. <4> 원문 사이는 2행 정도의 공백 처리.(수업시 우리말 기록용) <5> 결과물은 '첨부파일'로 '리포트제출'란에서 전송.

(4) 연습용 과제를 하면서 학생들은, 국내 검색 사이트와 중어권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들로써 우리말 강의 텍스트를 만들고 작가의 문학 활동과 작품 <영산>, 그리고 작가의 저서 등에 관한 중국어 텍스트를 편집해 내게 된다. 나아가, <한글>에서 편집 가능한, <영산> 원문에 한어병음을 달고 단어를 첨부한 강독 전용 텍스트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준비로 강의에 임하면, 담당교수는 설명식 강의를 통해 우리말 텍스트를 윤번으로 읽히면서 내용을 분석하고 체

계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때 고행건의 문학 행적과 <영산>에 대한 주변적 이해도 병행시키게 된다. 곧 텍스트의 내용을: <1. 작가 소개 ; 2. 작가의 문학 활동과 저서 ; 3. <영산>의 출판 배경 ; 4. <영산>의 내용과 형식 ; 4-1. 작품의 줄거리 ; 4-2. 작품의 이면적 주제 ; 4-3. 작품의 형식적 특성 ; 5. <영산>의 문학사상의 의의>로 나누어 각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텍스트에서 찾아 읽으면서 주요처에 체크를 하고 항목별로 해당 넘버링을 하도록 한다. 텍스트 가운데 나오는 어려운 내용(예컨대, 정재서 서평의 과제물)과 현대사의 주요사건 등은 기제출한 과제물과 교수의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킨다. 특히 1장과 2장, 3장 내용을 다룰 시에는 중문으로 편집된 과제물과 대조하여 확인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영산> 원문에 대한 강독 작업을 하게 되는데, 조사된 단어와 교수의 분석적 설명을 참고로 우리말 풀이를 해나간다. 이로써, 이론성 내용에 대한 이해와 원문 강독 과정이 마무리된다.

6. 매듭말

중국 전공자에 대한 급증하는 사회적 수요에 직면하여 대학 강단의 중문학 전공자들은 오히려 그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문학 교육방법의 개선과 현실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요구받게 되었다. 곧 외부의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게 된 현실에서 비실용적인 이론 과목을 두고 ‘강의 개선책 마련’과 ‘교과목의 폐기’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론의 장을 통한 포괄적이며 이론적인 담론은 많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이면서 구체적인 중국문학 교수법에 관한 결실은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중문학 강의의 ‘교수법’ 개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정 교과목 운영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본글을 작성하였다. 본글의 전개 과정에서 나온 주장의 요약과 일부 강의안 운영을 통해 종합된 견해를 정리, 소개함으로써

매듭말로 삼고자 한다.

교과목 운영의 구비조건은 첫째, 개설 강좌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하여 편안하고 재미있게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기제를 마련하는 일이다. 다음엔, 현대 젊은이들의 공통된 호기심을 강의실로 수렴시켜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는 최적의 교육 매체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중심의 강의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은 실용적인 몇가지 기능을 구비한 과목별 가상강의시스템이다. 또한, 강의실엔 최소한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비된 컴퓨터와 ‘빔프로젝터’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당사자들은 최소한 ‘윈도XP’, <아래아한글>‘2002’ 이상의 버전, 그리고 중문 워드프로세서 <남극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본글에 소개된 교과목의 개설 동기는, 원래 중문 인터넷 운용법과 중국어와 한글 워프의 결합 사용법에 관한 과목 신설 과정에서 그 실습 내용을 중국 문학으로 설정한데서 연유한다. 몇해에 걸친 운영 결과, 지금은 중문학의 습득과 인터넷과 워프상의 중문 운용법이라는 실용성을 지닌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인터넷 중문학 기행을 위한 ‘선행 학습’ 단계와 본격적인 ‘중문학 기행’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중간 및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세 과정 모두에 각기 적용되는 나름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다.

본글에서 요약 언급된 인터넷 중문학기행을 위한 ‘선행학습’ 단원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행해진 실제 강의 내용물의 일부로서 일종의 ‘강의노트’라 할 수 있는데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한글/중문 인터넷 운용을 위한 제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필자가 강의 운영 과정에서의 실습과 시행착오를 통해 정리하게 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문학 전반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필자의 기준에 따라 정리한 강의안 형식을 첨부하였다.

마지막 단원 ‘인터넷 운용의 강의 사례’는, 앞의 ‘선행학습’ 과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온라인상 세 부류의 상이한 문학 여행을 소개한 내용인데, 다양한 교수법과 강의 실체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일부 교육적 효과를 확인한 과정이기도 하다. 강의의 부제목을 보면, (가)

<현대와 고전의 만남 : ‘몰란’ 시나리오와 ‘목란사>, (나) <동영상을 통한 시문학 기행>, (다) <노벨 수상작 《영산》과 고행전>인데, 세 단원의 강의에서 성취된 교육적 효과를 부문별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중국문학 교육 방법론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개선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텍스트의 다양성에서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호기심을 수렴시켜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통상 중국 문학을 강의할 시, 단행본 1, 2권으로 한학기 동안 다루기 십상이다. 위의 경우는 3종의 텍스트 양식으로 분류되는데, 각기 2-3주씩 강의를 진행되었을 뿐이다. (가)는 현대식 애니메이션 동영상 감상과 시나리오 대본 강독, 손수 제작한 고대민가 ‘목란사’의 한어병음본 낭송과 해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일종의 퓨전식 텍스트 운용을 한 것이며, (나)는 중국 현지의 문화 유적과 풍물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다)는 학생들이 중문, 한글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한 자료로 마련한 3종의 일반 텍스트와 1종의 병음본 텍스트를 사용했다.

2) 위에서 사용한 중심 교육 매체는 바로 인터넷 활용이었다. 비디오, DVD 등 일반 시청각 매체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인터넷은 이 모두를 포함하고도 남는 기능이 있으니, 검색 자료의 무제한성, 용이한 접근성, 사용의 편의성, 시청각 자료의 보고라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인터넷 활용의 중심에는 바로 대학생들이 있으니 젊은층의 의식구조는 이에서 영향 받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까이 놓인 문명의 최첨단 기기인 인터넷을 교육 매체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세에 순응하는 교육 방식이라 여겨진다.

3)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해야 학습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예외없이, 텍스트 원본을 중문 사이트에서 검색, <남극성>에서 한어병음 처리 후 <한글>로 옮겨와 단어 정리까지 하게 됨으로써 ‘약식 중국어교본’을 손수 만든 셈이다. 그리고, 연습용 실습과제 작성 중 온라인상에서 감상문에 대해 상호 비판식 답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 상호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오프라인 강의실에선 담당교수와 학생들간 질의답변

식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되니 복합적 쌍방향 수업이라 할 만하다.

4) 인터넷을 운용한 중문학 기행 과정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이다. 문학 기행을 위한 선행학습 과정에서의 복습용 실습과제와 기행 중에 부과되는 연습용 실습과제 작성에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극성>, 각 버전 <한글>위프의 중문 운용에 능숙하게 만들었고 중문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곳곳에 방명록을 남기는 자신감을 키웠으며, 한글, 중문 자료의 텍스트 작성은 자연스런 일상이 된다. 이런 학생들이 중국 방면으로의 전공을 살려 사회로 진출한다고 가정해 보면 여기서 익힌 인터넷 자료 검색과 중문 자료의 처리 능력은 그 자체가 실용성을 의미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밖에 덤으로 얻는 것 또한 적지 않으니, 재미난 문학 여행을 통해 얻은 중문 문학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상식으로 존재할 것이며, 한어병음 본 텍스트와 조사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익힌 고급중국어 독해력 배양은 본 강좌의 실질적인 부산물이라 하겠다.

부 록 [준비성 선행 학습용 강의안]

<목 차>

1. '중문 인터넷' 운용에 관하여
 - 1) 인터넷상 중국어 읽기와 입력
 - 2) <납극성> 운용법
 - 3) <아래아한글>의 다면적 운용
 - 4) <납극성>과 <한글>의 결합 운용
2. 중문학에 대한 공시적 이해

1. '중문 인터넷' 운용에 관하여

먼저 '중문 인터넷'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급해 보기로 한다.¹⁾ 이에 앞서 일반적인 중문 검색 엔진을 소개하면, 간체(GB)에 雅虎中国 (<http://cn.yahoo.com>), 搜狐 (<http://www.sohu.com.cn>), 번체(BIG5)에 타이완의 雅虎臺灣 (<http://tw.yahoo.com>), 홍콩의 雅虎香港 (<http://hk.yahoo.com>) 등이 있는데, 위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 된다.

1) 인터넷상 중국어 읽기와 입력

중문 사이트에서 글자체(번/간체)가 깨어져 보일 경우엔 익스플로러 화면 맨위 '메뉴바' / <보기(V)> / <인코딩(D)> / <자동>에 체

1) 여기서 윈도XP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전, 윈도XP가 지금처럼 일반화되기 전에 필자는 강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강생들의 사용 컴퓨터 윈도 체제가 최소 2-3종은 넘어 개별 시스템 사양에 맞추어 강의를 하느라 동일 내용의 과정도 강의노트를 2-3종씩 작성하곤 했다. 이제 그러한 불편이 사라짐과 동시에 XP의 향상된 기능 덕분에 강의노트가 많이 얇아지게 되어 필자로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최신 윈도vista 버전은, 이용자가 아직 많지 않고 윈도XP 기능을 수용하여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강의상 그다지 신경쓸 일은 없었다.

크 혹은, ‘아래단’의 <중국어 간체 (GB2312 ; HZ) 또는 <중국어번체(BIG5)>를 클릭하면 되지만 위의 항목에 안보이면 ‘기타’를 클릭한 후 해당 글자체 찾으면 해결된다.

간(번)체자 입력기(IME : Input MMethod)는, 중국어 검색어를 타자하여 특정 내용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의 각종 문장을 다룰 때 예컨대, MS-Word2000 및 Outlook Express에서의 입력이나 중국어 대화방과 방명록 사용, 그리고 중국어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중국어 이메일을 작성하는 등 여러 용도의 쓰임새가 있다.

윈도XP에서 Global IME(중문 간체자 입력기)를 설치하려면, 내컴퓨터 / 제어판 / 국가 및 언어 옵션 / 언어 / 자세히 // (혹은, 모니터 우측하단의 <KO> 혹은 ‘태극무늬’ 중 한곳에다 마우스를 대고 ‘우측’ 클릭 / ‘설정’ 선택) // 추가 / ‘입력언어’에 중국어(중국) / ‘자판배열’에 ‘Chinese(Simplified)-Microsoft Pinyin IME 3.0 선택 / ‘확인’ 과정을 거치면 완료된다.

Global IME를 운용하려면, 먼저 한글 혹은 중문 인터넷을 활성화시킨 후 <KO> 클릭 / 중국어(중국) 선택 / <CH>, ‘MS문양’, ‘中’, ‘초승달’, ‘마침표’로 구성된 막대가 출현하여 ‘간체자 입력’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검색>란에 찾고자 하는 병음 입력 후 엔터키 (주요 ‘단어’ 단위로 한꺼번에 입력 가능함) / 첫타자에 원하는 글자가 보이지 않을 시, 키보드상의 ‘←’ 키를 사용하여 입력된 한글자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블록 잡음 / 이때 ‘좌우’로 나열된 문자열 중, 원하는 글자의 번호 선택 혹은 직접 클릭하여 입력, 문자를 모두 입력한 후 검색키(搜索)를 클릭하면 찾고자 하는 ‘자료소개란’에 진입하게 된다.(간체자 입력시 ‘우물라이트’(ㄴ / ü) 처리 시엔 ‘v’를 입력할 것)

중문 번체자 입력기 설치는, 윈도XP에서의 간체자 입력기 설치 시의 앞의 과정과 거의 동일하나, ‘추가’ 버튼 // ‘입력언어’를 <중국어(대만)> ; ‘자판배열’을 <‘Microsoft New Phonetic IME 2002a> 선택, 확인 / <Microsoft New Phonetic IME 2002a> 위에 커서 대고 클릭, 블록 잡힘 / ‘속성’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 / <Microsoft Newtic Input Method 2002a Property> 상자 출현 / ‘Keyboard Mapping’ 클릭 / ‘입력 방식’을

‘Hanyu Pinyin’ 선택하여 확인, 클릭하면 ‘번체자 입력기’ 설치가 완료된다. 운용을 하려면, 먼저 한글 혹은 중문 인터넷을 활성화시킨 후, 마우스를 <KO>에 대고 좌측 클릭 / 중국어(대만) 선택, 클릭 / <CH>, ㄹ, ㄴ 등으로 구성된 막대가 보이면 ‘번체자’ 입력이 가능한데, <검색>란에 찾자 하는 병음 입력 후 엔터키 / 첫타자에 원하는 글자가 보이지 않을 시, 키보드상의 ‘↓’ 키를 사용, 커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 이때, ‘상하’로 나열된 문자열에서 원하는 글자 선택, 검색키를 누르면 원하는 1차 자료에 접근을 하게 된다. (번체자 입력시 역시, ‘우물라이트’(ㄹ / ü) 처리에 ‘v’를 입력할 것)²⁾

2) <남극성> 운용법

중문 워드프로세서엔 종류가 많지만 한국에서 가장 손쉽게 구입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남극성>이라 할 수 있다.³⁾ <남극성>은 중국어 번(간)체자의 ‘한어병음’ 및 한자 부수를 통한 입력이 가능하며 편집 기능 또한 뛰어나지만, 우리에게 가장 편의성과 효율성을 맛보게 하는 기능은 역시 주어진 문장 자료에 대한 ‘한어병음 첨가법’이라 하겠다. 자료의 분량에 상관없이(?) 중국어 원문을 불러잡아 1-2 단계만 거치면 모든 자료상에 한어병음이 원하는 위치에 첨부됨으로써, 중국어 강독교재 혹은 중국어텍스트 편집(특

- 2) 위의 과정에 대한 ‘복습용 실습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中國의 명문대학군 (北京大, 清華大, 浙大, 復旦大, 上海交通大, 華中科技大, 武漢大, 南京大) 가운데 1개 대학을 선택하여, 반드시 검색란에 ‘타자’를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대학소개란> 부분만 프린팅하여 강의시에 제출할 것. / <2> 대륙 사이트의 방명록(留言版)이나 의견 기록 가능한 공간에 들러 중국어로 5행 이상의 글을 남긴 후, 그 화면을 프린팅하여 제출할 것. 이때, 여러분의 ‘이름이나 본인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흔적’이 프린트상에 찍혀 나오도록 할 것. (‘방명록’ 찾기가 어려우면 중국 ‘cyworld’에 들릴 것.) / <3> 香港 中文大學(번체) 홈페이지 가운데, 學院學系課程/文學院/中國語言及文學系/教師名錄에 들러, 1) 학과장(系主任)의 이름과 E-Mail 영문 주소, 2) 교수진 가운데 1명을 선택하여, 이름 및 학술저작 2권을 소개할 것. / <4> 國立臺灣大學圖書館(번체)의 <開放時間>을 클릭, 참조하여 總圖書館의 暑假 自習室的 周日 개방시간을 조사할 것. 라) 위의 과제를 하면서 가지게 된 소감을, ‘내용’란에다 2행 이상 적을 것. / <제출 형식> : 가상강의실 ‘리포트제출’란의 ‘내용’란에다 후반 2가지 과제를 작성하여 편집할 것.
- 3) <남극성>은 웨어웨어 버전으로 홈페이지 < http://www.njstar.com>에서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최신 제품으로는 앞서 소개한 ‘njcwp520sw61018’ 버전이 있다.

히, 후술될 ‘한글’과의 결합 시엔 완벽한 한글화된 문서 편집이 가능함)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남극성>의 설치는 <남극성> 홈페이지 가상강의실 <자료실>에 올려진 ‘파일’을 클릭하여, <next>를 몇차례 거치면 그 과정이 끝난다. 바탕화면에 <NJStar Chinese WP>라는 메뉴가 생기는데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워드가 실행된다. 이 워드는 <한어병음>, <한자부수> 등으로 중국어 입력이 가능한데, 입력 모드 가운데 <字詞拼音>은 중문 입력에, 영어 또는 숫자 입력시엔 <英文ascii>를 선택한다. 타이핑 시에 영어/중문 변환은 ‘Ctrl+ Space key’이며, 현재 선택된 언어는 화면 하단 입력바의 좌측에 표시된다. 변환키 대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영문ascii> 혹은 <자사병음> 버튼을 클릭해도 입력 모드가 바뀐다.

한어병음으로 중문을 입력할 시, 간체자 문서는 메뉴바 <Help>에서 ‘Simplified System’을, 번체자 문서는 ‘Traditional System’을 선택한다. 입력된 문자의 글자체를 고정시킬 땐 메뉴바 윗단 좌측의 <南極星系統簡體>나 <南極星系統繁體>를 선택하면 된다.

西安(xian)과 現(xian) 등 발음기호가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의 발음기호마다 작은따옴표(')를 붙이거나(xi'an) 대문자로 써도 된다.(xiAn). 병음 입력시 운모 부분은 생략해도 즉, 발음기호의 앞글자 1-2개만 입력해도 단어가 제시되는데, ‘中華’는 zhh만 쳐도 中華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大學’ 입력에도 ‘dx’, ‘dax’, ‘daxue’, ‘dxue’ 등 발음기호의 앞자만 쳐도 제대로 입력되어 나온다. 오타를 쳐서 수정코자 할 때에는 ‘Back-space키’로 한글자씩 지우든가, ‘Esc키’로 모두 지울 수 있다. 우물라이트(ㄴ / ü)는 ‘uu’나 ‘v’로 입력한다.(律師는 luush, lvsh를 침)

‘한자/병음 변환기’(Hanzi to Pinyin Conversion)의 기능은 <남극성>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단, ‘破音字’는 대표발음만 나오며 성조의 변화도 지원되지 않는 한계는 있다. 변환기 실행은 먼저 발음을 알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거나 본문 전체를 선택한 후, 메뉴바 <tools> 아래의 <Hanzi to Pinyin Conversion>을 선택하면 변환기 메뉴가 나타난다.(문서내용 중 ‘범위’를 ‘블록잡기’하지 않으면 ‘Hanzi to

Pinyin Conversion'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음) <tools> 메뉴의 '- Conversion'을 선택하면 'Hanzi to Pinyin Conversion' 표가 보이는데, 결정할 항목이 세가지 있다 : 1) Output Tones - 성조(tones)를 숨기거나, 표시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할거냐를 묻는데 기본은 갈매기 표시가 좋다. / 2) Output Chinese - 병음만 나타내고 한자는 생략하느냐, 한자를 쓰면 그 위·아래 어디에 병음을 표시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 3) Spaces between Chinese characters : 한자와 한자 사이의 간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 1ascii (반자 간격)이면 무난하나, 가끔적 기본 설정에서 손을 안대는 것이 좋다.

병음 처리된 자료 가운데 발음을 수정해야 될 경우엔, 동일 화면상의 다른 글자 발음의 일부 요소를 복사해서 짜깁기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메뉴바의 <Input>/ <Symbols Input>/ <Pinyin Tone>에 들러 순서대로 발음 수정을 하게 되면 편하다.

변환기를 실행하면 원문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원문의 복사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복사본에서 한어병음이 추가로 표시되는데, 워프 종료시에 둘다 저장해두면 작업한 파일이 사라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저장시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반드시 확장자를 <*.NJX>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한자와 한어병음은 글꼴 크기와 색상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발음기호의 범위를 선택한 후 '도구모음'에서 '팔레트'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색상표에서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면 된다.⁴⁾

4) <남극성> 운용과 관련된 복습용 실습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극성>에서의 간체입력 및 발음달기 실습과 편집 연습 - 중국어텍스트('중급' 이상)의 중국어문장 가운데 임의로 200개 이상 분량의 간체자 글자를, 텍스트 원문의 한어병음을 참고하여 <남극성>에다 타자, 입력할 것. / 입력된 원문을 블럭잡아 '한어병음'을 달되, 원문 아래에 위치시키고 병음 폰트12, 원문 폰트18로 할 것. 이때, 병음의 색상만 2-3가지로 변환시킬 것. / 첨가된 한어병음을, 여러분이 참고한 텍스트 원문의 병음과 비교, 대조하여 텍스트와 다른 발음을 모두 찾아내어 수정, 편집 과정을 거칠 것. 이때, 수정한 글자의 갯수와 해당 글자를, 아래에다 밝힐 것. / 전체 내용을, 행간과 자간 거리 및 행간 전후에 일정량의 편집 작업을 할 것. / 최종 편집된 위의 문장을, 간자체로 고정시킬 것. / <2> 중문자료의 <남극성>에서의 병음달기 및 편집 연습 - 야후 <대만> 사이트의 검색창에 <高行健專輯> / '線上作品閱讀' / '小說' / <靈山> 中文全本 '下載' 클릭 / '열기' / 4개의 압축파일을 하나씩 '더블클릭'하여 지정된 첵터(회)를 찾아갈 것. / 작품의 맨처음 '문단' 가운데 3-4행 을 복사하여 <남극성>에다 붙일 것. / 위의 문단에 한어

3) <아래아한글>의 다면적 운용

<한글> 버전2002 이후부터 한글 웹문서는 당연히, 그리고 중문 웹문서로 된 대부분의 자료는 중간 절차없이 바로 우리글 문서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곧, <한글2002> 버전과 그 이상인 <한글 Wordian>, <한글2004>, <한글2005>, <한글2007> 등의 경우엔, 인터넷상의 '한글 자료' 및 '중문 자료'(번체/간체 자료 포함) 모두 일반적인 기존 방식대로 '블록' 잡아 '복사'한 뒤 바로 <한글>워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약간의 선택 과정을 거쳐 '붙이기' 작업만 하면 원하는 자료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런데, 중문 웹문서를 <한글>에 '붙이기'를 할 때, 복사해 온 자료를 < 편집 / 붙이기 > 혹은 마우스 클릭 후 <붙이기>를 해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 편집 / # 골라붙이기 / #유니코드 문서>로 처리하면 글자체의 정확도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역으로 <한글>에서 입력된 중문 '번체자' 혹은 '간체자' 모두, 블록 잡은 후 복사하여 중문 웹사이트상에 '붙이기'를 하면 모두 호환이 되어 원하는 편집이 가능하다.⁵⁾

병음 첨가를 한 뒤, 원문 폰트16, 병음 폰트12, 병음만 다른 색상 처리를 할 것. / 행간, 자간, 문단 정렬 등 편집 및 수정 작업을 마친 뒤, 위의 내용을 '번체자'로 고정시킬 것. / <3> 제출 형식 - 위의 두가지 내용을 <남극성>에서 편집, 저장하여 2개의 파일로 만들어, 동일한 '리포트제출'란을 통해 전송할 것. / 아래단 '내용'란엔 과제 작성 중의 소감을 3행 이상 밝힐 것.

5) 본강좌 개설시 <한글97> 및 <97기능강화판>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위의 2가지 기능 곧 <한글>에서 작성된 중문 자료의 중문 웹사이트로의 복사, 편집과 그 반대 과정인 중문 웹상 자료의 <한글>에서의 작업은 복잡하여 학생들에게 힘들었다. 당시 <한글 워디언>은 고가품이라 <한글97>의 부족을 채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강의용 소프트웨어로 쓰기엔 보편성과 대중성이 떨어졌다. 그뒤 <한글2002>가 나오으로써 그러한 교학상의 고민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한글>은 우리 전공자가 사용하기엔 일부 기능은 오히려 갈수록 퇴보하여 실망감을 주고 있다. 예컨대, 위에서 보았듯이 <97강화판>에 있던 '중문 및 한어병음성조 동시 입력법'이 <한글2000> 시리즈엔 문장 단위 혹은 병음 상하 첨부가 아니라 낱글자 단위의 측면 첨부만 가능하여 실용성이 떨어지며, <한글2007>은 한어병음에 '성조' 첨부 혹은 수정하는 기능이 그 이전과는 달리 없어져 버렸다. <한글> 버전은 뒤로 갈수록 간체자 입력 기능 등은 오히려 불편하다. <한글> 제작진들의 중국어의 세계화와 그 입력법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보인다. 어느 수강생이 '한컴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단점에 대해 알고는 있더라도 한다. <한글>을 버전업 시킬 때, <남극성>의 '문장 단위 동시 병음첨부 기능'을 포함시키면 전공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남극성>과 <한글>의 결합 운용법을 찾아내어, <남극성>에서 만든 한어병음 첨부 중문 자료의 <한글>에서의 한글문서화가 가능할

<한글>의 <모양>/<글자모양>에서 ‘신명조’는 통상 번체자를 의미하며, ‘글꼴’ 선택 시 < 신명조/중고딕/해서/시스템>은 각기 ‘약자’ 및 ‘간자’가 있는데, 약자는 일본식 자체이며, 간자는 바로 중국식 간체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른 명칭이 뒤에 붙지 아니한 자체는 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번체자 형식의 다양한 글꼴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한글> 시리즈에서의 ‘한어병음’을 이용한 중국어(한자) 입력법에 대해 보겠다. 이같은 단순 기능은 <한글97> 버전은 물론 버전 2002 - 2007에서도 모두 가능하다 : ‘메뉴바’의 <입력> (2007은 <도구>) / <글자판> / <글자판바꾸기>에서 좌우 Shift-space 설정을 <중국어 간체(번체) / 병음>으로 바꾸면 된다.(<중국어 번체>는 입력키가 <주음>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활용이 불가함. ‘번체’는 우리음을 이용하여 입력하거나, ‘간체’ 입력 후 ‘번체’로 변환하면 됨) 위의 번잡한 과정 이외, <한글> 화면상 우측 메뉴바의 파란색 <한>에 커서 / 마우스 좌측 클릭 / 中(중국어 간체/ 번체) 선택, 클릭해도 병음을 통한 중문 입력이 가능하다. 설정 후, 한어병음 영문 입력 / 스페이스바 터치 / 나온 한자가 맞다면 그대로 / 아니라면,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한번더 / 같은 병음의 중국어 문자열 창 / 위아래에서 원하는 글자 선택(<한글97>은 아래위 나열이 안됨) / 엔터키 / 한자 입력을 하면 된다

이어서, 중국어(한자)에 한어병음(성조)을 첨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한글> ‘버전2002’에서 ‘2007’까지 버전업이 될수록, 위의 기능은 퇴보한 경향을 보여준다. 문장 단위로 되지 않고 매자마다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데, 곧 한자를 사이사이 띄운 다음에 <Shift+F9>를 눌러, 한어병음(P)(선택한 간체자 옆에 괄호 없이 병음과 성조가 표시됨)이나, 한어병음(H)(선택한 간체자 옆 괄호안에 병음과 성조가 같이 표기됨)를 선택한다. 예컨대, 咖啡의 ‘한어병음’을 ‘성조’ 포함하여 입력 시, 두글자를 붙이지 말고 <咖 啡 >식으로 띄워 입

을 알게 되었다.

력한 후, 한글자씩 선택(글자옆에 커서 위치)하여 <Shift+F9>를 누르면 해당 글자의 중국어 발음이 성조를 포함하여 모두 옆으로 나옴. 예를 하면, 간체 咖(kā)啡(fēi) / 번체: 媽(mā)媽(mā)로만 표기되어 실용성이 크게 떨어져 보인다.

한어병음에 성조 첨부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겠다. <한글>버전 2002이상 가운데 일부 버전은, ‘메뉴’에서 < 입력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로 들어가든가, <Alt+F9>를 눌러서 현재 글자판을 <중국어 간체>로, 그 옆에는 <병음(성조)>을 선택한다. 이 상태에서 <xian(4성)>을 표시하고 싶으면 <x, i, a, 4, n>을 차례로 입력하면 <a>위에 4성 악센트가 표시가 된다. 마찬가지로 성조 표시를 하고 싶은 모음(母音) 바로 뒤에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력하면 되는데, ‘5’는 경성을 표시한다. <한글> ‘97기능강화판’은 더욱 쉽게 입력이 되고, 버전2002는 위의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하나, 버전2007은 되지 않는다.

<한글97기능강화판>에서의 <간체/병음(성조)> 동시 입력법을 보자. 오직 <한글97기능강화판>에서만 간체자 아래위에 병음(성조) 직접 표기가 가능하다. 입력 / 글자판 / 바꾸기 : 글자판 종류 - 아시아 - ‘중국간체 병음’ - 화살표 두번째 줄을 누르고 좌측 <Shift+space> 키를 누르면 <한글> 좌측 아랫단에 <중국간체 병음> 표시가 나온다. <중국간체 병음>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입력 / 글자판 / ‘바꾸기’ 아래의 ‘변환설정’이 활성화된다. 이때, 한자(중국어) ‘위 혹은 아래’ 병음표기 선택 / 덧말의 <병음> 선택 / 설정을 누른다. 위의 설정 단계를 마친 후, 필요한 중국어(한자) 병음 입력 / ‘스페이스바’ 터치 / 한번에 원하는 글자 없을 시, ‘스페이스바’ 혹은 ‘상하 화살표’ 키로 원하는 글자 선택, 입력 / ‘엔터키’를 치면 선택된 글자 위아래에 ‘병음(성조)’이 첨가되어 보인다. <한글97>에서 병음으로 간체를 입력할 시, 첫타에 원하는 글자가 없을 경우엔 <한글2002> 이상 버전과 달리, 동일 발음의 문자열이 상하로 동시에 나열되지 않고 한글자씩만 보여 선택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병음(성조) 첨부는, 매글자 입력 시에 해도 되고, 단어 단위로도 가능하며, 완성된 문장 단위로도 동시 입력이 가능하나 기입력된 문자가 변환되어 도로

(徒勞)가 되는 수도 있으니 피합이 좋아 보인다. 곧, <한글97>은 긴 문장을 구성할 경우, 뒷글자 입력시 기입력된 앞문자가 바뀌어버려 병음(성조) 처리를 한꺼번에 하기엔 위험이 따르며, <남극성>과 같이 기존의 다른 중국어(한자) 문장에 병음(성조)을 일괄 첨부하는 기능은 없다. <한글97>은 <남극성>에서와는 다르게, 중국어(한자) 위 아래 첨부된 병음(성조)이 문자와 분리가 되지 않아 ‘문자와 발음간, 혹은 발음만’의 편집상 불편한 점이 있다.⁶⁾ 따라서, <한글97>의 위와 같은 모든 단점과 <남극성>만의 최대 장점을 결합한 편집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그 가능성을 뒤에서 모색하게 됨.)

<한글> ‘97기능강화판’에서의 병음에 성조 첨부하기 기능을 보기로 한다. < 오른쪽 Shift+더블스페이스>를 쳐서 작업표시줄 왼쪽 아래 <중국간체/병음>이 보이도록 입력글자판 변환 / <Ctrl+’> (‘ : 숫자 1 왼쪽옆의 점)을 누르면 <‘한어병음’에 ‘성조’ 입력상태>가 된다. 한어병음의 운모를 눌렀을 때 파란 글자가 뜨는데 이때, 해당 성조 숫자만 누르면 성조가 입력된다. 입력키를 보면, 글자판에서 <문자>용으로 <숫자 0, i, u, v, a, o, e, f >중 하나를 먼저 누른 다음, <성조>용으로 <숫자 0-5>를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가 <한어병음에 성조입력된 상태>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입력의 예를 보면, <문자>용 숫자 0은 알파벳 없이 윗부분에 성조부호만 표시할 때 먼저 입력하면 되며 / v는 u움라우트(ü)를 입력시킬 때 / f는 e위에 고깔모자 ^ (ê : ‘에’ 발음)를 입력시킬 때 사용하며 / 그런 다음, <성조>용 숫자 0은 성조표시를 하지 않을 때 치면 되고, 숫자 5는 점으로 경성표시를 가능케 한다.(다음 정리 참고 : 0+4 = ` / a+4 = à / v = ü / f = ê) 끝으로, 성조입력 상태를 해제하려면 다시 <Ctrl+’>을 누르면 된다.⁷⁾

6) 병음과 원문이 분리되지 않지만, 최근 ‘병음만의 분리 수정법’을 알게 되었다. <한글> ‘97강화판’에서 <병음에 성조 입력 상태>를 만들고, 수정할 원문 원편에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하면, ‘덧말 넣기’가 활성화되어 수정할 병음과 성조를 분리하여 수정이 가능케 된다.

7) 위에서 언급된 사항의 복습용 실습과제는 아래와 같다 : <1> <한글97기능강화판>에서의 병음을 통한 간체 입력 및 병음(성조) 달기 : 1) 중국어 텍스트(병음첨부분 / 해석 가능한 문장으로 구성된 교재)를 임의로 선택 / ‘40개 글자’ 분량의 중국어 ‘간체’ 문장을, 병음을 통한 입력과 동시에 원문 위에 한어병음(성조) 발음 첨부 / 입력된 중국어에 문장 단위로, 그 아래에

4) <남극성>과 <아래아한글>의 결합 운용

<한글> 중국어(한자) 문서의 <남극성>에서의 편집의 예를 보자. <한글>2002 이상 버전에서 편집, 작성된 중문 자료의 1) 블록(선택) / 복사하기 / <남극성> Edit / Paste As / Unicode Text 혹은, 2) Paste Special / Unformatted Unicode Text의 2가지 과정 이외에는 모두 ‘붙이기(paste)’에서 깨져 버려 호환이 어렵다.

<남극성> 중문 자료의 <한글:2002이상 버전>에서의 편집의 경우를 보겠다. 병음(성조) 첨부 자료를 포함한 <남극성>의 모든 자료 : 1) <남극성> 자료의 블록(선택) / Copy / <한글>의 편집 / 골라붙이기 / 유니코드 문서 혹은, 2) <남극성> 자료의 블록(선택) / Copy As / Unicode Simp. 혹은 Unicode Trad. 선택 / <한글> 붙이기, 혹은 골라붙이기(#유니코드 문서)를 하면, 곧 병음 첨부된 중문 자료의 <한글>에서의 복사, 편집이 가능해져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2. 중문학에 대한 공시적 이해

중문학 기행을 떠나기 전, 예비적으로 갖춰야 할 중문학 관련 기본적인 상식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지면이다. 방대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무수한 작가 및 작품의 출현을 보게 된 중문학 세계의 윤곽을 조망한다는 것이, 짧은 시간내 좁은 편폭의 자료로써는 일견 무리수

우리말 해석을 할 것.(중국어 폰트20 / 한글 폰트12 / '신명조'체로 통일함 2) 임의로 '15개 글자' 정도의 중국어 문자(혹은 문장 / '신명조' 간체자로)를 입력한 후 / 각 '글자 아래'에 '한어병음과 성조를 개별 입력하여 첨부하되 / 원문(폰트24)과 병음(폰트, 임의로 조절)간의 행간('원문과 '병음'간 줄간격 80-100% 정도) 및 글자 폰트에 대해 편집할 것. 3) 2가지 내용을, <한글97>의 동일 화면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 것. / <2> <한글>자료-(남극성)자료-<한글>에서의 편집 및 활용 : 1) '중문사이트에 임의로 들어가, 3-5행 정도 문장 '복사' / <한글>에 '붙이기' / <한글>상의 자료 다시 '복사', <남극성>에 '붙이기' 2) 위의 문장에 '한어병음처리' 후 '복사'하여 <한글>에다 '붙이기' (신명조 '간체') / 원문 폰트16, 병음 폰트('색상')는 임의 조정. '원문과 병음'간의 행간 130%. 병음은 원문 위로) / <한글2002버전>이하 파일로 만들어 과제 파일 <1>과 함께 가상시스템 <리포트제출>란을 통해 전송하되, '내용'란엔 과제 작성 중의 어려운 점이나 소감을 3행 이상 밝힐 것.

로 여겨짐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학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학 장르별 명칭, 시대 구분 정도의 내용은 최소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초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본단원에선 생략하기로 한다.

(1) 문학의 개념

(2) 시대별 전개 양상

- ① 주대말 -- 위진육조 -- 오대 -- 원 -- 명말 -- 민국
- ② 양한 -- 당조 -- 양송 -- 명조 -- 청조

(3) 중문학 전개의 배경 및 성격

- ① 역사적 배경 :
- ② 자연, 지리적 조건 : ㉠ 북방 ㉡ 남방
- ③ 사상적 배경 : ㉢ 유가 사상과 유가의 문학관
㉣ 도가 사상과 도가의 문예관

(4) 중문학 각 문체(Genre)별 특성

- ① 고전시가(Poetry) : ㉠ 시경시 ㉡ 고체시 ㉢ 근체시 ㉣ 초사, 한부 ㉤ 사 ㉥ 산곡
- ② 고전산문(Prose) : ㉦ 문장의 효능 ㉧ 고전산문의 분류와 발전 ㉨ 중국 고전산문의 특징 ㉩ 문체별 개관
- ③ 고전소설(Novel) : ㉪ 기원과 발달 ㉫ 명칭 백화소설의 유행 ㉬ 주요작품
- ④ 고전희곡(Drama) : ㉭ 기원과 발전 ㉮ 고전극의 특성

(5) 중국 현·당대문학

- ① 시기별 개관 : 신문학1기(1917-26) ; 신문학2기(1927-36) ; 신문학3기(1937-49) ; 당대문학(1949 -)
신시기문학 (1976 -)
- ② 장르별 주요 작가 및 작품 : 노신, 모순, 애청, 주자청 등.
고행건

〈参考文献〉

- 이인호, 조관희, 《인터넷 플러스 중국》 중국학@센터, 2001
이인호, 《나는 중국어도 인터넷으로 배운다》 중앙M&B, 2002
이무진, <한글 윈도우즈 XP에서의 중국어 사용> (《중국소설연구회보》 제57호, 2004.3)
권응상, <중국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중국문학》 40집, 2003.11)

<Abstract>

There are some requirements to improve efficiency of Chinese-literature class. The class should be interesting, and have practicality. Also, there should be academic debate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or student and student. To accomplish these conditions, using internet system for class is the best way. Then, following equipments and softwares are needed ; Beam projector and Computer ; Superhighway for internet ; Cyber lecture-space in the campus ; Hangul Korean word processor ; NJStar Chinese word processor. Professor also is required qualification to achieve final goal of class : Professor should be industrious, develop creative teaching method, and be able to use both Korean word-processor and Chinese word-processor freely.

Key word : Chinese literature / Internet system / Beam projector / NJStar Chinese WP